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5. 10. 19. ~ 10. 25.

전남농업정보

56

VOL

주간 기상전망

농작물 재배 동향

2015년산 취청오이, 애호박 재배의향 속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충북, 농업-기업 상생협력 수출 페스티벌 개최
한국 외식기업 10곳, 동남아 시장 적극 공략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홍차 적합품종 '보향' 농가보급
참바늘버섯서 세계 최초 향천식효과 밝혀내
쌀귀리, 10월 20일~30일 파종하세요!

정책동향

농식품부, 경영위기 농가 회생지원 강화 방안 마련
농식품부, '스마트 팜' 확산 속도 높인다!!

해외 농업정보

좋은 날씨에 서유럽 지역 곡물 파종 박차
호주 장기간 가뭄으로 밀, 우유 생산 우려
해외 곡물시장 상황(시카고 선물거래소, 2015.10.19.)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기상청)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음.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6~13도, 최고기온: 18~21도)보다 높겠음.
-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적겠음.

※ 농작물 재배 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취청오이, 10월 정식면적 작년보다 증가, 11~12월 비슷할 듯
- 애호박, 10~11월 정식의향 작년보다 감소 전망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농촌경제연구원)

▶ 엽근채소 : 양배추 · 당근

- 양배추 : 전월보다 낮은 4,500~5,500원/8kg이 될 것으로 전망
- 당 근 :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21,000~26,000원/20kg이 될 것으로 전망

▶ 과 일 : 사과 · 단감

- 사 과 : 양광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34,000~37,000원/10kg으로 전망
- 단 감 : 부유 평균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22,000~24,000원/10kg으로 전망

❁ 전남 시·군 농정 동향(시군농업기술센터)

- ▶ 담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시연회 개최
- ▶ 광주 월계중학교 학생 60명 초청 체험학습 행사 가져
- ▶ 농업기술·정보, 맞춤형으로 알려 드립니다.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농림축산식품부)

- ▶ 9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소폭 상승
- ▶ 충북, 농업-기업 상생협력 수출 페스티벌 개최
- ▶ 한국 외식기업 10곳, 동남아 시장 적극 공략

❁ 농업기술정보(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 ▶ 홍차 적합품종 '보향' 농가보급
- ▶ 참바늘버섯서 세계 최초 항천식효과 밝혀내
- ▶ 쌀귀리, 10월 20일~30일 파종하세요!
- ▶ 열대 과수 '스타프루트' 국내 시설재배 성공
- ▶ 신들의 특별한 음식 '복령', 대량 생산 길 열려
- ▶ 벼 수확 후 건조, 완벽하게 안전하게!
- ▶ 아프리카에서 전북농업 배우려 왔네요
- ▶ 짠 간척지에서 단 토마토 키운다

❁ 정책동향(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 경영위기 농가 희생지원 강화 방안 마련
- ▶ 농식품부, '스마트 팜' 확산 속도 높인다!!!
- ▶ 통계청 9.15일 기준 예상생산량 발표 관련
20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 조기 마련키로

❁ 해외 농업정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좋은 날씨에 서유럽 지역 곡물 파종 박차
- ▶ 호주 장기간 가뭄으로 밀, 우유 생산 우려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은 전 세계적 밀 풍작과 시기적절한 강우 예보에 부셀당 약 5달러나 하락하며 전일 대비 2% 하락 마감함. 미국 겨울 밀 재배 지역에 다음 주 비 예보로 지연된 파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됨.
 - 옥수수 선물가격은 한달래 최저치를 기록 후 반등함. 근 10년간 금지했던 중국의 옥수수 에탄올공장 건설 재개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보임.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두달래 상승세에 따른 차익거래 영향으로 하락 마감함. 최근 개선된 수출수요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였는데 USDA는 주간보고에서 최근 150만톤의 수출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으며, 지속적으로 대두 수출 수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Brugler는 전함.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마늘 생산비절감 경영모델 개발사업 연사회(전남)

- 일 시 : 2015. 10. 29.(목) 14:00
- 장 소 : 강진군 작천면 농가 포장
- 인 원 : 40명(단지참여 농가, 관계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마늘 기계화 일관작업 파종연시, 생산비 절감사업 소개

▶ 제9회 농업인 두레품물 경연대회 모집

- 행 사 명 : 2015 제9회 전국 농업인 두레품물 경연대회
- 기 간 : 2015. 11. 6.(금) ~ 11. 7.(토)
- 장 소 : 여의나루역 한강공원 멀티플라자
- 경연부분 : 농업인 두레품물 부분, 농촌 어린이국악 부문
- 문 의 : (사)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Tel:02-979-0248 / E-mail:yhsinbaram@daum.net

▶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5. 10. 20. ~ 11. 30.(42일)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 신청대상 :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 비료종류 : 유기질비료(3종), 부숙유기질비료(2종)
- 지원조건
 - 국비지원액 및 규모(계획안) : 1,600억 원, 3,200천 톤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10. 19.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10/19)	1주일전 (10/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8,000	38,600	39,800	40,600	40,467	↓ 6.4	↓ 6.1
	콩(백태)	35kg	137,000	137,000	137,000	138,000	200,453	↓ 0.7	↓ 31.7
	고구마(밤)	10kg	22,200	21,800	23,500	20,500	22,473	↑ 8.3	↓ 1.2
	감자(수미)	20kg	24,800	24,800	24,900	20,000	25,313	↑ 24.0	↓ 2.0
채소류	배추(고랭지)	1kg	400	460	595	481	662	↓ 16.8	↓ 39.6
	양배추	10kg	4,900	5,300	6,150	4,500	7,712	↑ 8.9	↓ 36.5
	오이(다다기계통)	10kg	16,333	19,000	21,500	17,278	21,078	↑ 5.5	↓ 22.5
	애호박	8kg	15,000	13,200	16,750	13,350	17,110	↑ 12.4	↓ 12.3
	토마토	10kg	21,400	22,200	29,050	26,150	37,750	↓ 18.2	↓ 43.3
	무(고랭지)	20kg	8,300	8,400	8,000	10,920	13,260	↓ 24.0	↓ 37.4
	당근	20kg	30,400	34,000	32,900	39,800	43,783	↓ 23.6	↓ 30.6
	건고추(화건)	60kg	816,000	826,000	830,000	864,000	937,333	↓ 5.6	↓ 12.9
	풋고추	10kg	19,600	20,800	27,500	37,850	42,403	↓ 48.2	↓ 53.8
	마늘(난지)	10kg	53,000	51,000	46,200	34,200	36,633	↑ 55.0	↑ 44.7
	양파	20kg	28,200	28,600	28,000	10,400	17,747	↑ 171.2	↑ 58.9
	대파	1kg	1,620	1,870	1,870	1,125	1,660	↑ 44.0	↓ 2.4
	파프리카	5kg	13,600	15,400	26,150	28,950	34,743	↓ 53.0	↓ 60.9
	방울토마토	5kg	11,200	12,600	14,350	11,400	24,320	↓ 1.8	↓ 53.9
	수박	1개	9,000	9,600	11,000	7,850	9,483	↑ 14.6	↓ 5.1
과일류	사과(홍로)	15kg	29,000	29,600	39,033	-	31,420	↑ 0.0	↓ 7.7
	배(신고)	15kg	39,200	40,200	41,250	28,400	33,413	↑ 38.0	↑ 17.3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10/19)	1주일전 (10/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0,000	530,000	530,000	524,000	548,133	↑ 1.1	↓ 3.3
	들깨	45kg	422,000	422,000	422,000	423,500	336,833	↓ 0.4	↑ 25.3
	새송이버섯	2kg	8,200	7,800	8,400	7,000	8,145	↑ 17.1	↑ 0.7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890	7,609	7,496	6,693	6,429	↑ 17.9	↑ 22.7
	돼지고기(삼겹살)	100g	1,994	1,846	2,119	1,813	1,691	↑ 10.0	↑ 17.9
	닭고기	1kg	5,357	4,893	4,724	5,860	5,899	↓ 8.6	↓ 9.2
	계란(특란)	30개	5,471	5,684	5,741	5,641	5,455	↓ 3.0	↑ 0.3
	우유	1리터	2,547	2,547	2,547	2,548	2,352	↑ 0.0	↑ 8.3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10. 19.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952 천원	5,825 천원	4,651 천원	↑ 2.2	↑ 28.0
	거세	7,026 "	7,174 "	5,460 "	↓ 2.1	↑ 28.7
송아지 (6~7월)	암	2,661 "	2,692 "	1,942 "	↓ 1.2	↑ 37.0
	수	3,326 "	3,357 "	2,512 "	↓ 0.9	↑ 32.4
육우(600Kg)		3,525 "	3,481 "	3,258 "	↑ 1.3	↑ 8.2
젖소수송아지(7일령)		314 "	314 "	26 "	-	↑ 1107.7
돼지(110kg)		324 "	313 "	372 "	↑ 3.5	↓ 12.9
육계(원/kg)		1,428 원	1,568 원	1,706 원	↓ 8.9	↓ 16.3
계란(원/특란10개)		1,176 "	1,216 "	1,308 "	↓ 3.3	↓ 10.1
오리(원/kg)		2,166 "	2,000 "	2,166 "	↑ 8.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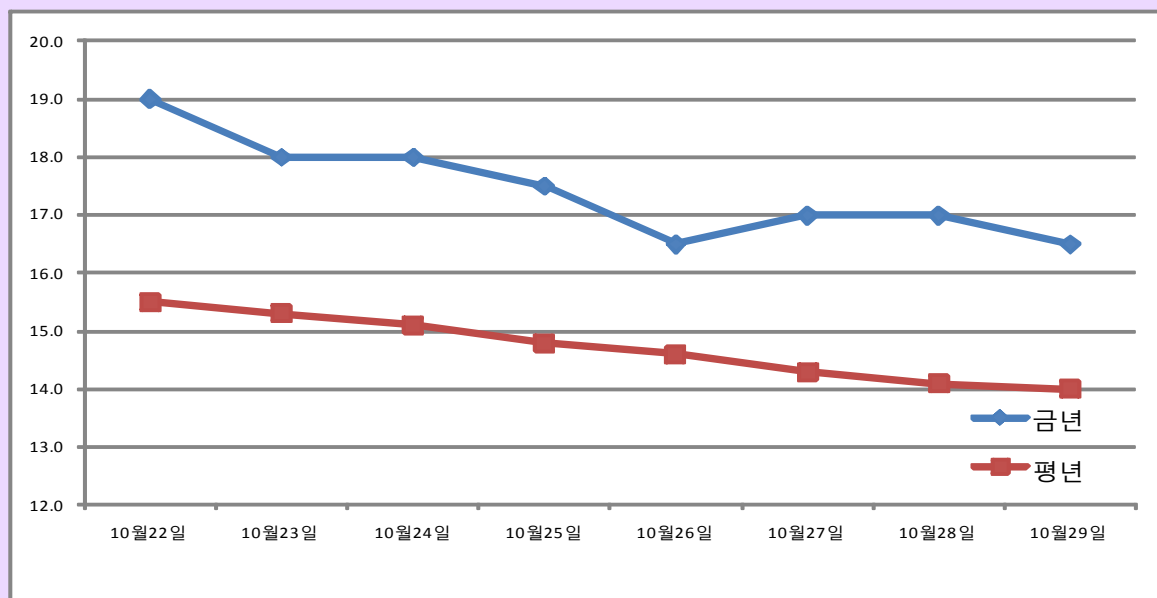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1. 주간 기상전망

(기상청 중기예보 /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17.4	14.7	2.7	21.8	20.2	1.6	13.1	10.5	0.7	1.3
10. 22.(목)	19	15.5	3.5	24	21	3	14	11.3	-2.7	1
10. 23.(금)	18	15.3	2.7	23	20.8	2.2	13	11.1	-1.9	1.2
10. 24.(토)	18	15.1	2.9	22	20.5	1.5	14	10.9	-3.1	1.1
10. 25.(일)	17.5	14.8	2.7	21	20.3	0.7	14	10.5	3.5	0.9
10. 26.(월)	16.5	14.6	1.9	21	20	1	12	10.4	1.6	1.1
10. 27.(화)	17	14.3	2.7	21	19.7	1.3	13	10.2	2.8	1.5
10. 28.(수)	17	14.1	2.9	21	19.7	1.3	13	10	3	1.6
10. 29.(목)	16.5	14	2.5	21	19.4	1.6	12	9.8	2.2	1.8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

2. 농산물 재배 동향

취청오이·애호박 재배 동향

- 취청오이, 10월 정식면적 작년보다 증가, 11~12월 비슷할 듯
 - 10월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10월은 호남지역의 겨울작형 정식이 이루어지는데, 전남 순천에서는 내재해성 시설면적이 확대되겠으며, 전남 보성·여수·해남에서는 작년 겨울철 가격 호조로 9월 정식을 10월로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 11~12월 정식면적은 전남 구례의 일부 농가에서 10월 정식을 11~12월로 늦추겠으나,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애호박, 10~11월 정식의향 작년보다 감소 전망
 - 10월 정식면적은 정식비중이 큰 경남 진주지역에서 9월로 정식을 앞당겨 작년보다 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11월 정식면적은 작년 육묘기 기상 장애로 11월 재정식 비중이 컸던 전남 광양에서 10월로 정식을 되돌려 작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12월 정식면적은 영남, 호남지역의 정식의향 변화가 적어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엽근채소 : 양배추 · 당근

○ (양배추)

- 10월 양배추 도매가격은 전월보다 낮은 4,500~5,500원/8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순에는 출하지가 고랭지에서 충청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일시적인 출하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 (당 근)

- 10월 당근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21,000~26,000원/20kg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월 상순 가격은 저장품 당근의 출하량 증가로 9월 하순의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저장품 당근이 모두 소진 되는 중순에 가격이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과 일 : 사과 · 단감

○ (사 과)

- 10월 양광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34,000~37,000원/10kg으로 전망된다.

○ (단 감)

- 10월 부유 평균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22,000~24,000원/10kg으로 전망된다.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4. 전남 시·군 농정동향

■ 담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시연회 개최

- 올해 4억4400만원 투입, 자주형콩탈곡기 외 18종 27대 확보 -

- 담양군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펼쳐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시키는 등 생산성과 농가 소득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 이에, 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신규 농기계 임대율을 높이고, 임대 농업인의 안전사용을 위해 농업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신규 구입한 농기계 전시 및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시연회에서는 사용빈도는 낮으나 농작업 수행에 필요한 농기계 위주로 전시 교육한데 이어, 채소 이식기 시연을 통해 농기계 작동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소 어려운 농기계 사용에 자신감을 심어줬다.
- 특히, 교육을 통해 농기계 작동에 따른 안전 관리를 강조했으며, 신규 농기계 임대율을 높여나가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에 적극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대한 농업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농기계를 구매하고,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담양군농업기술센터

■ 광주 월계중학교 학생 60명 초청 체험학습 행사 가져

- 기술센터는 지난 8일 광주 월계중학교 학생 60명을 초청해 옥과면 소룡리 사과마을과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서 농촌체험학습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 이번 농촌체험학습은 곡성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학교를 대상으로 공급업체인 옥과농협과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월계중학교에 이어 문흥중, 문산중, 서광초, 농성초등학교와 추진할 계획이다.
- 이날 체험행사에서 소룡리 사과마을에서 빨갛게 익은 사과를 직접 따서 먹어보고 수확철을 맞아 황금빛으로 물들인 들녘의 벼와 센터에서 제공한 홍보용 햅쌀을 현장에서 비교하는 경험을 통해 농촌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 곡성심청축제가 열리는 곡성 기차마을에서 비누, 향초만들기 등 체험부스를 관람하고 1004장미공원, 요술랜드 등을 돌아보며 다양한 체험을 했다.
- 센터 관계자는 “농산물 수확 체험행사가 농가에는 일손을 덜어주고 학생들은 미래의 고객으로, 학부모들은 직거래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광역시뿐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 학교급식 납품대상 학교를 초청해 농촌체험학습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곡성 친환경쌀 학교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정보, 맞춤형으로 알려 드립니다.

- 보성군, 농업인과 문답식 컨설팅으로 현장문제 바로 해결 -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지난 6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업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에게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2015년 식량작물 종합컨설팅'을 개최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대주)에 따르면 이번에 실시한 식량작물 종합컨설팅은 밀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 4명이 참석하여 영농현장에서 직면하는 애로기술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 이날 컨설팅은 공통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공동 컨설팅과 관심분야별 전문상담이 이루어지는 개별 컨설팅으로 나뉘 진행되었고, 공동컨설팅은 쌀 관세화, fta 등 공통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은 재배관리, 병해충관리, 경영/마케팅 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농업인과 1:1로 상담을 진행했다.
- 식량작물 종합컨설팅은 농업인이 원하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과 정보를 현장에서 쉽게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새로운 방식의 컨설팅이며, 컨설팅에 참여하는 농가는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문제해결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전문가 역시 현장의 문제를 농업인을 통해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종합컨설팅의 효과는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량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빠르게 보급함으로써 시험연구와 재배농가와의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현장중심의 기술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보성군농업기술센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동향

9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소폭 상승

□ FAO에 따르면, '15년 9월 식량가격지수가 전월 보다 약 1%(1.2포인트) 상승하여 156.3포인트를 기록하였다.

○ 이는 엘니뇨 영향으로 인한 설탕 가격 상승과, 뉴질랜드의 생산규모 축소 등에 따른 유제품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다. 곡물, 유지류, 육류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 하였다.

○ 전년 동월에 비해 18.9%(36.4포인트) 낮은 수치로, '14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금년 9월에 소폭 상승하였다.

* 식량가격지수: ('14.4월)211.5→(12월)185.8→('15.3월)171.5→(6월)164.9→(8월)155.1

< 품목군별 식량가격지수 >

□ (곡물) '15년 8월(155.1포인트)보다 0.2% 하락한 154.8포인트를 기록하였다.

○ 국제 곡물 가격은 풍부한 재고량 및 양호한 작황전망에 기인하여 '15년 초 부터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 특히, 밀 가격은 지난해 기록적인 생산량에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 (유지류) '15년 8월(134.9포인트)보다 0.5% 하락한 134.2포인트를 기록하였다.

○ 최근 식물성유지 가격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은 팜유 가격 하락에 기인한다. 이는 말레이시아 등 일부국가의 풍부한 팜유 수출 가용량 전망에 따른 것이다.

□ (설탕) '15년 8월(163.2포인트)보다 3.2% 상승한 168.4포인트를 기록하였다

○ 설탕 가격지수의 상승은 엘니뇨의 영향에 따른 브라질(세계 최대

설탕 생산국), 인도(세계 2위 설탕 생산국), 태국(세계 2위 설탕 수출국)의 사탕수수 재배 악화 전망에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2015/16년도 설탕 생산량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육류) '15년 8월(171.1포인트)보다 0.4% 하락한 170.5포인트를 기록하였다.

○ 육류 가격지수는 '15년 3월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금육 가격은 하락, 쇠고기 가격은 상승하였으며, 돼지고기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 (유제품) '15년 8월(135.5포인트)보다 5% 상승한 142.3포인트를 기록하였다.

○ 모든 유제품 가격이 높게 유지됐으며, 그 중 분유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지불금 감축에 따른 뉴질랜드 농가의 생산규모 축소에 기인한 것이다.

< 2015/16년도 세계 곡물 수급 전망 >

□ 2015/16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014/15년도 대비 0.9%(24.1백만톤) 감소한 2,534.3백만톤으로 전망하였다.

*생산량 전망치(전년대비): 밀0.3%(1.9백만톤) 증가 / 잡곡1.8%(24.1백만톤), 쌀0.4%(1.9백만톤) 감소

□ 2015/16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529.6백만톤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2014/15년도 대비 1.2%(30.7백만톤) 증가한 수치다.

*소비량 전망치(전년대비): 밀2.0%(14.1백만톤), 잡곡0.8%(10.9백만톤), 쌀1.1%(5.6백만톤) 증가

□ 2015/16년도 세계 곡물 기말재고량은 2014/15년도 대비 0.7%(4.2백만톤) 감소한 637.8백만톤으로 전망하였다.

*기말재고량 전망치(전년대비): 밀1.6%(3.3백만톤) 증가 / 잡곡0.6%(1.6백만톤), 쌀3.5%(5.9백만톤) 감소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충북, 농업-기업 상생협력 수출 페스티벌 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3일~14일 2일 간, 충북 청주(라마다호텔)에서 지역 상생협력과 수출 확대를 위한 충북지역 상생협력 수출 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지역 농업·기업계에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현재까지 경북, 경남, 충남, 전남 등 전국 8개 권역의 순차적인 상생협력 설명회 개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 경북(7.20), 경남(7.29), 전남(8.5), 충남(8.21), 전북(8.31), 경기(9.1), 강원(9.8), 충북(10.13)

○ 특히, 이번 설명회는 국내외 바이어들과의 수출상담회 및 상생협약(MOU) 체결 등과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내 유통확대 및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농식품 상생협력 공동 추진본부장인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이시종 충북 도지사 및 도의장, FTA산업협회 회장, 도내 농식품업계, 중국·일본·동남아 해외바이어 등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은 FTA 등 글로벌 경쟁시대에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과제로서 정부는 그간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상생협력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농업계와 기업의 다양한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 발굴**·확산을 추진중에 있다.

*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 설립(대한상의, '14.9) : 농업과 기업계간 상생협력 사례 발굴 및 성과 창출 관련 지원

** 원료구매, 수출협력, 공동출자, 종자개발, ICT 등 다양한 유형의 상생협력 MOU 사례 발굴(31건)

○ 이번에 충북지역에서 소개된 사례는 오창농협과 SK그룹과의 협력 사례로 2005년 SK그룹과 함께 약 5억원의 자본금으로 IT와 직거래를 결합·운영한 ‘꾸러미’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연매출 112억원의 규모화 된 사업으로 발전한 것으로,

○ 초창기에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대라는 도농상생의 사회공헌형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SK에서 ‘자연이랑’이라는 사이트를 개설, 오창농협의 우수 농산물을 SK케미칼 구성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 친환경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배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유통이력시스템을 통해 안전성 확보와 함께 신뢰와 신용을 얻게 되고, 현재는 1,500 농가, 1,100개 품목, 그룹 내 6개 기업, 2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충북 지역 대표적 우수상생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 또한, 이번 행사는 충북지역 우수 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유통업계 및 해외 바이어 간 상생협약(MOU) 체결*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상생협력 성과를 극대화하였다.

* 충북도-이임쇼핑 : 도내 우수 농식품 발굴 및 TV홈쇼핑을 통한 판로개척과 마케팅 활성화 등

* 충북도-동남아 한국식품수입상연합회 : 우수 농식품의 지속적 판매 네트워크 확보 및 아시아 수출 교두보 마련

* 충북도-한국FTA산업협회 : 수출업체의 현장 컨설팅 및 경연자문, 수출상담회 지원 등

○ FTA산업협회와 연계한 중국·일본·동남아 등 해외 바이어 30여개 업체와 충북 도내 유기농산물 및 농식품 생산자 단체 약 50개 업체간 1:1 매칭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현장 계약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 또한, 한국FTA산업협회, aT충북지역센터, 중국인증경영컨설팅의 자문을 통해 수출장벽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하고, 충북 유기농식품의 우수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도내 우수 유기농식품의 생산현장 견학도 진행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우리 농식품의 수출 확대는 현재 상생협력의 주된 목표 중의 하나로, 이번 행사는 충북지역의 우수 농식품의 지속적인 수출 네트워크를 확보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하였으며,

- 향후에도 농업·기업계의 상생협력 참여촉진을 위한 우수사례집 발간(11월),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 및 제도적 지원 장치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 외식기업 10곳, 동남아 시장 적극 공략

- 농식품부aT, 2015 한국 외식기업 아세안 로드쇼 개최('15.10.14./싱가포르)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는 10월 14일(수)에 싱가포르 Amara Hotel에서 「2015 한국 외식기업 아세안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동 행사에는 동남아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10곳과 말레이시아·베트남 등 아세안 5개국의 투자·외식·식자재유통 등 관련분야 기업 34곳이 참석할 예정이며
- 행사에 참가한 한국 외식기업들에 대한 투자설명과 1:1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될 계획이다.

□ 국내 외식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최근 몇 년 동안엔 인기 드라마·대중음악 등에서 시작된 한류에 힘입어 외식기업의 해외진출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시장에 진출한 한국 외식기업은 2014년 기준 120개 업체·3,726개 매장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2010년 기준 해외 진출 매장수는 990여 개로 3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 그동안 농식품부는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해외 박람회 참가지원·식재료 수출 물류비 지원·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 특히, 2014년 4월에는 범정부차원의 「민·관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외식관련 학계·업계 등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중심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정리하여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 2015년 4월에 발표하였다.

○ 이번 행사도 동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외식기업들이 요청한 과제로써, 국내 외식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해외진출 파트너가 되어줄 현지 기업 및 투자자들을 발굴·유치할 수 있도록 외식기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 「민·관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 공동위원장(농식품부 차관, 양일선 연세대 교수), 산업부·외교부·aT·Kotra, 업계 등으로 구성

* 「국내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인력양성·정보제공·법률지원·홍보강화·지원기반구축 5개 분야 29개 과제로 구성, 추진상황 점검 및 과제보완 등 지속 추진중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더욱 많은 국내 외식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길 바라며, 해외진출 경험이 없는 외식기업들에겐 해외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어떤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어 향후 해외 시장 개척 선도기업들로 성장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고, 애로사항들을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6.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홍차 적합품종 '보향' 농가보급

- 전남농기원 차 재배농가 숙원 홍차 적합품종 재배 길 열어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은 그동안 차나무 품종육성 결과 13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출원을 하였고, 그 중에서 잎이 크고 나무세력이 좋아 수확량이 재래종 차나무에 비해 2배 정도 많으며 특히 카테킨 함량이 높아 홍차 제다에 적합한 “보향” 품종을 집중 육묘하여 농가에 공급하였다고 밝혔다.
- 보향은 1994년 전남 승주군 낙안면 야생 차밭에서 수집하여 1997년에 우량계통으로 선발 후 특성검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전남 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에서 육성하였다.
- 숙기는 중생종으로 내한성은 강하지만 연평균 온도 13℃이상 지역인 남부해안 지역인 전남, 경남, 제주에 적합한 품종이다. 수형은 직립형으로 수세가 강하며 특히 신초 생장이 균일하고 양호하여 기계화 재배에 용이한 품종이다. 엽중에 카테킨함량이 높은 품종으로 홍차 제다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증가하는 추세다.
- 전남지역 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차 재배농가들에 대한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차산업 연구소는 2001년부터 육성한 참녹, 보향, 명녹 등 신품종 묘목을 대량 증식하여 지금까지 10만주(5.0ha용)를 농가에 공급하여 신품종 차밭조성을 지원하였고 또한 조기성원화를 위한 차나무 재배기술 개발을 농가에 꾸준히 컨설팅하고 있다.

- 이번 보성 읍어 소재 선다원에 '보향' 품종 보급(3,000주/10a)은 보성지역 차밭 조성사업이 본격화 된 이래 최초의 일로서 홍차 제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차산업 전반에 시너지효과로 작용해 침체된 전남지역 차산업 전반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차산업연구소 윤창용연구사는 전남 차의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홍차를 비롯한 다양한 차 제품 개발을 위한 단일품종 차밭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4ha까지 확대 공급할 계획으로 전남 차의 세계화를 위한 명차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인 품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참바늘버섯서 세계 최초 항천식효과 밝혀내

- 완도수목원, 동신대와 공동연구 결과...인공 재배 기술 농가 이전 확대키로 -

-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소장 박화식) 완도수목원이 일본보다 앞선 기술로 참바늘버섯 대량 인공 재배에 성공한데 이어 세계 최초로 항천식효과를 밝혀내 관련 기술 산업재산권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 참바늘버섯 항천식효과 연구는 산림청 연구개발(R&D) 임업기술 연구개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201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완도수목원 오득실 박사팀이 동신대학교 한약재산업학과 박대훈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 천식은 전 세계적으로 2억 3천여 명이 앓는 만성 호흡기질환이다. 기도의 염증과 점막의 부종으로 인해 기도 수축을 일으켜 심할

경우 호흡 정지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 현재 사용되는 천식 치료제는 주로 부신피질호르몬(corticosteroid hormone)으로 어린이의 성장 저하, 백내장, 녹내장, 고혈압, 고지혈증, 근육통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 천연물로부터 천식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밝힌 참바늘버섯 추출물의 항천식효과는 천식 동물모델 쥐 실험을 통해 기존 치료물질인 덱사메타손(Dexamethasone)과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치료제 이상의 우수한 효과를 확인하고 지난 6월 특허출원(10-2015-0087293, 6월 19일)을 통해 산업재산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했으며 현재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마친 상태다.
- 참바늘버섯(Mycoleptodonoides aitchisonii, ブナハリタケ)은 향과 맛이 좋은 식용버섯일뿐만 아니라 항당뇨와 혈압 조절, 뇌신경세포 활성화 등 약리효과가 각종 외국저널을 통해 알려졌다으나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버섯이다.
- 최근 연구팀에 의해 국내에서는 병과 봉지 재배를 통해 대량 생산에 성공, 농가 실증재배까지 마쳤다. 일본에서는 인공재배가 안돼 후쿠시마현 등 동북부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자연재배에 의존하는 등 국내보다 재배 기술력이 떨어진 상태다.
- 연구를 주관하고 있는 오득실 완도수목원장은 “참바늘버섯은 국내에 자생하고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유망한 식·약용버섯”이라며 “재배농가 기술 이전을 통해 건강식품으로 개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참바늘버섯을 국내 최초 원균 순수분리에

성공, 인공재배법 개발 및 효능 연구를 통해 특허출원 1건, 특허 등록 3건, 품종출원 1건을 완료하고, 논문 15편을 발표하는 등 국내에서 주도적인 연구를 해왔다.

* 출처 :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

■ 쌀귀리, 10월 20일~30일 파종하세요!

- 농촌진흥청, 쌀귀리 안정 생산을 위한 파종 요령 제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최근 재배 면적이 크게 늘고 있는 쌀귀리의 안정 생산을 위한 파종 요령을 소개했다.
- 쌀귀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작물로 혼반용, 오토밀1) , 이유식 등에 이용된다.
-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쌀귀리 소비도 늘어 재배 면적도 2011년 224ha에서 올해 약 1,200ha로 크게 늘었다. 현재 전북 정읍과 전남 강진, 해남, 영암 등을 중심으로 재배하고 있다.
- 쌀귀리의 주요 재배지인 전남 지역은 기온이 비교적 높아 파종을 늦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10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빨리 파종해야 껍질이 잘 벗겨지는 고품질 종자를 얻을 수 있다.
- 쌀귀리를 밭에 줄뿌림 할 때는 10아르 당 9kg, 논에 줄뿌림 할 때는 10kg, 논에서 흩어 뿌릴 때는 13kg을 뿌린다. 파종 깊이는 3cm 내외로 얇게 하면 종자의 출현율을 높일 수 있다.
- 밀거름은 보리 전용 복합 비료를 (14-15-8 2))로 헥타아르 당 13포를 기준으로 하되 재배지 토양 상태에 따라 조절해 뿌려준다.
- 파종 시기에 비가 많이 오거나 농가 사정으로 늦어질 경우에는 파종하는 양을 30% 늘리는 것이 좋다.
- 파종 후에는 제초제 처리와 배수로 마무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파종 후 3일 내에 제초제를 10아르 당 3kg을 뿌리되, 토양에

수분이 많을 경우에는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겨울을 난 후에는 중기제초제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

- 귀리는 습해에 약하므로 배수로 마무리를 철저히 해 습해와 어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농촌진흥청 논이용작물과 현종내 농업연구관은 “쌀귀리의 파종기를 잘 따르고 알맞은 비료를 주면서 적절한 재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선양’(2004), ‘조양’(2007), ‘대양’(2007), ‘수양’(2010)을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와 농업인 단체, 선도 농가와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해 종자를 보급하고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열대 과수 '스타프루트' 국내 시설재배 성공

- 3품종 들여와 재배 가능성 검토... 1그루당 열매 15kg 수확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열대 과수 중 비교적 추위에 강하고 맛과 모양이 특이한 ‘스타프루트’를 국내 처음으로 시설하우스 재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은 ‘스타프루트’ 3품종1)의 묘목을 2009년 미국에서 들여와 1년간 격리 재배 온실에서 식물검역을 받으며 시설하우스 재배 가능성을 검토했다.
- 약 2년 동안 묘목을 키워 2012년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시설하우스에 환경적응성 포장을 조성한 후 2m×3m(10a당 150주) 간격으로 아주심기 했다.
- 2014년 5월 첫 꽃이 피면서 8월에 첫 수확이 가능했고, 지난해에는 수량은 많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열매가 달렸다. 올해는 1그루당 58개~84개 정도가 열려 평균 15.5kg 정도 수확하면서 ‘스타프루트’의 국내 재배 성공을 알렸다.

- 3품종 모두 과육이 노란색이며 품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별 모양을 갖고 있다. 당도는 9브릭스~10브릭스 정도이며 산 함량은 0.2%~0.3%다.
-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시설재배에 알맞은 나무 모양을 개발하고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기 위한 재배 기술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2008년부터 열대·아열대 작물의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도입·선발해 국내 지역 적응성 시험을 거치는 등 새로운 소득 작물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스타프루트’(Averrhoa caeambola L.)는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원산지이며, 열매를 가로로 자르면 이름처럼 별 모양이 뚜렷이 보이는 과일이다.
- 수분 함량이 많고 껍질째 먹을 수 있고 샐러드나 채소류와 같이 요리에 이용한다.
- 동남아시아 지역에선 ‘스타프루트’ 열매를 지혈제, 숙취 해소, 해열제로 이용하며, 꽃을 찢어서 피부알레르기 치료에 이용하기도 한다.
- 농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임찬규 연구사는 “‘스타프루트’는 과육이 노란색이면서 껍질째 먹을 수 있는데다 모양도 특이한 과일 이어서 국내 소비자들이 선호할만하다.”라며, “앞으로 국내에서 시설재배가 가능한 우수한 품질의 품종을 더 많이 들여와 국내 적응성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신들의 특별한 음식 '복령', 대량 생산 길 열려

- 톱밥 이용한 재배 기술 개발... 수입 대체 효과 클 듯 -

- 면역력 증진과 피부 미용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복령을 톱밥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한약재로 많이 사용하는 복령을 소나무 원목을 땅에 묻거나 비닐봉지에 넣어 재배하는 방법이 아닌 순수한 톱밥을 이용한 재배 기술을 개발해 특허출원1)했다.
- 이 기술은 톱밥을 이용해 복령을 재배하기 때문에 모래나 흙 같은 이물질이 섞이는 것이 막고, 원목을 비닐봉지에 넣어 재배하는 방법보다는 자동화에 의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 재배 방법은 소나무 등 다양한 톱밥에 영양원을 첨가한 후 섞어 비닐봉지에 넣어 멸균한다. 종균을 접종해 배양실에서 배양한 후 생육실(온도 20℃~25℃, 상대습도 60%~90%, CO₂농도 1000ppm)로 옮겨 균핵의 형성과 복령 생육을 유도한다.
- 톱밥을 이용해 재배한 복령의 평균 무게는 260g/봉지이며, 건조 중량은 96.2g/봉지이다. 일반적으로 원목 매몰 재배는 재배 기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3.3m²당 8.9kg~13.3kg이 생산된다.
- 또한, 아미노산 중 아스파르트산(L-Aspartic acid), 세린(L-Serine) 등 16종류의 아미노산 함량이 자연산과 원목 재배 복령보다 높았다.
- 이 재배 기술은 특허출원했으며, 복령을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기능성 및 가공 업체에 기술이전할 예정이다.
- 기술이전을 위한 통상실시 계약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031-8012-7215)에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 복령은 죽은 소나무 뿌리에 기생해 균핵을 형성한 것으로 한방에서는 중요한 필수약재다. 국내 한약재 수입의 87%를 차지하며 한약재 수입 비중이 가장 높지만, 국내 소비량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 복령은 오래 복용하면 얼굴이 홍안 소년과 같아진다고 해서 동자초

(童子草)로 불리기도 한다. 이노작용, 심신 안정, 피부미용과 당뇨 개선 등의 다양한 효능이 알려져 있으며, 강장제인 십전대보탕과 경옥고 등 보신 처방에 빠지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 국내·외의 복령 재배는 원목만을 이용해 재배하고 있으며, 현재 톱밥을 이용해 재배하는 기술은 개발돼 있지 않다.
- 기존의 복령 재배는 균 접종 전·후 원목을 땅 밑에 묻어 재배하기 때문에 비용과 노동력이 많이 들고, 균 활착과 결령(균사의 뭉침)의 실패율이 높다. 성장 과정 중 흙과 모래, 중금속, 농약 성분 등 이물질의 침투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버섯과 이찬중 박사는 “톱밥을 이용하면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복령을 생산할 수 있으며, 수입 대체 효과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벼 수확 후 건조, 완벽하게 안전하게!

- 벼 수분함량 15% 내외로 낮추되 건조기 이용 시 천천히 -

- 벼 수확이 한창인 요즘, 품질이 우수한 쌀 생산을 위한 벼 수확 후 관리, 즉 용도 알맞은 건조와 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은 수확을 앞두고 있는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적기 수확 지도와 수확 후 건조 요령에 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 밥맛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확한 벼를 적정 수분 함량인 15% 내외로 건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확 당시의 수분함량은 보통 22~25% 정도로 적정수분까지

건조를 위해서는 건조방법과 시간 등을 잘 선택해서 말려야 한다.

- 최근 들어 수확한 벼 건조는 주로 건조기를 이용하여 말리는 농가가 많아졌다. 건조기를 이용한 벼 건조는 건조 방식에 따라 순환식 건조기와 연속식 건조기로 나뉘어진다. 순환식 건조기에 의한 건조는 건조 속도가 빠르며 곡물의 품질 손상이 적고, 균일한 건조가 이루어진다. 또한 에너지 소비도 적은 편이다. 건조할 때는 시간당 수분함량을 0.7~1.0% 정도로 건조시키는 것이 좋다.
- 연속식 건조기에 의한 건조는 곡물이 건조기를 1회 통과할 때 수분이 2~4% 정도 건조된다. 곡물이 건조실을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5~30분, 수분조절 시간은 3~8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이밖에 최근에는 감압건조, 원적외선건조 등 최신기술을 접목시킨 건조방법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편화되지는 않은 기술들이어서 대부분 화력을 이용한 열풍건조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 주의할 점은 화력으로 벼를 건조할 때 시간단축을 위해 너무 높은 온도에서 건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건조시간은 단축되지만 금간 쌀이 많아져 도정율이 떨어지고, 백미 중 싸라기 발생이 늘어나 양적, 질적 손실이 커진다. 특히 종자용으로 사용할 경우, 발아율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화력건조를 할 때에는 종자용은 40℃ 이하에서 건조하고, 나머지도 45~50℃로 맞추어 건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벼 수분함량이 20% 이상인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8시간 이내에 서둘러 건조를 하고, 특히 수분이 26% 이상인 물벼는 4~5시간 이내에 건조를 시켜야 변질을 막을 수 있다.
- 반면에 한편 화력 건조기를 이용하지 않고 햇볕에 의한 자연건조 방식을 이용하는 농가도 많이 있다. 주로 시멘트 바닥, 또는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변의 아스팔트 포장 갓길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이 방법의 단점은 금간 쌀이 많이 생겨 쌀의 품질이 떨어지고, 통행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을 항상 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햇볕에 벼를 말리고자 할 때는 수확한 논에 벼짚을 깔고, 그 위에 망사를 펴서 건조를 하면 건조시간도 줄이고 쌀의 품질도 높이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 출처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 아프리카에서 전북농업 배우러 왔네요

- KAFACI 14개 회원 나라 지도공무원·농업연구원 농기원 방문 -

-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 KAFACI 14개 회원 나라 지도공무원·농업연구원 등 20명이 13일 방문하여 전북농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 성과를 청취하고 시험포장을 견학했다.
- 이날 방문한 KAFACI(한국·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의 나라를 대표하여서 국가별 한명씩 농업관련 분야에서 연구와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우리도 농업발전 현황과 과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 특히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품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작물을 도입하고자 준비하는 시험사업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게 하면서 소비층의 다양화를 위한 가공식품 개발에 많은 질문이 있었다.
- 또한, 창조농업을 위해서 추진하는 농업 6차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카메룬의 앙젤린 베너는 우리 농촌에서 전통문화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농촌체험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농업기술원 광동옥 현장지원국장은 찾아온 KAFACI 회원 국가

대표에게 '21세기는 식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투자의 귀재인 짐로저스도 농업에 투자를 강조하고 식량산업의 소중함을 전달하였다.

-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이 우리 도에 이전함에 따라, 국제화 시대에 농촌진흥사업이 외국인 연수생들과 연계하여 세계 속의 한국농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 출처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짠 간척지에서 단 토마토 키운다

- 염분 높은 간척지에서 두 배 단 토마토 재배 가능성 확인 -

-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13일 신간척지 화옹지구에서 토마토 재배기술 개발 현장평가회를 통해 재배기술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였다.
- 도 농기원에서는 간척지와 같이 염분이 높은 토양에 토마토를 재배하면 일반 토마토보다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토마토를 생산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금년 4월부터 토마토 재배를 연구해 왔다.
- 화옹지구는 토양 염농도가 12~17dS/m 수준으로 작물재배 적정 범위(2.0dS/m 이하)를 초과한다. 도 농기원은 땅속에서 올라오는 염분을 차단하기 위해 벚짚, 파쇄목과 같은 차단제를 땅속 30~40cm에 투입하고, 토양에는 재배 전 염분을 낮출 수 있는 석고 중화량과 부족한 인산, 유기물 보충을 위해 가축분 퇴비, 벚짚을 넣어 재배했다.
- 새로운 재배기술을 적용해 재배한 간척지 토마토는 당도가 일반 토마토(4~5브릭스)에 비해 8~9브릭스 정도로 2배 정도 높고, 크기는

일반 토마토의 절반 크기이나 육질이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 도 농기원은 앞으로 화옹지구에 관개시스템이 정비되고 녹비작물 재배를 통해 토양 유기물 함량(2~3%)을 올린다면 맛 좋고 품질 좋은 토마토 생산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도 농기원은 토양 염농도를 낮추는 재배기술과 일반 토마토 수준으로 수량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기술을 내년에도 계속 개발할 계획이다.
- 도 농기원 임재욱 원장은 “간척지는 감소하는 경지면적을 대체할 수 있고 특히 대규모화 농업이 가능하다.”라며 “다양한 소득작물을 개발해 향후 간척지가 새로운 경기 명품농산물 생산단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한편, 도내 간척면적은 8,118ha(화옹 4,482ha, 시화 3,636ha)로, 전국 11지구 3만7,049ha의 21.9%를 차지하고 있다.

* 출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7. 정책동향

◆ 농식품부, 경영위기 농가 회생지원 강화 방안 마련

- 부분환매도입, 분할납부기간 연장, 환매자금 선납제도 도입 등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재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중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토록 지원하는 한편,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하여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 (7~10년) 종료후에는 다시 환매토록 하여 실질적으로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문조사 결과 90%의 만족도를 자랑하는 대표사업이다.
- 농식품부는 '16년부터 본격적으로 환매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부분환매 도입) 기존에는 매도한 농지의 전부에 대해 환매가 허용되었으나, 일시환매에 따른 자금마련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 환매 요청시 부분환매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단, 이 경우 감정평가액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액 매도 원칙은 그대로 유지기로 하였다.
- (분할납부 기간연장) 기존에는 임대기간(7~10년) 내에 환매액의 40%를 선납하고, 3회에 걸쳐 잔금을 분납토록 하던 것을 임대기간 종료후 3년 이내 분납하되, 선납비율을 30%로 낮추어 사실상의 임대기간 연장효과와 환매자금 마련에 따른 부담을 완화기로 하였다.

○ (분할상환 이자율 인하) 최근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여 분할상환에 대한 이자율을 기존 3%에서 0.5% 인하 하기로 하였다. 이자율은 고정금리 선택시 2.5%, 변동금리 선택시 1.8%를 적용 받게 된다.

○ (환매자금 선납제도 도입) 농가가 영농을 통해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보다는 대부분 시설재투자,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환매에 어려움을 겪는 점에 착안하여 여유자금을 언제든지 선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농업인이 환매자금 마련 등 환매준비 과정에서 느꼈을 어려움 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관련법령 등을 조기에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사업은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나 대표전화(☎1577-7770)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스마트 팜’확산 속도 높인다!!!

- ‘17년까지 스마트 온실 4천ha, 축사 700호 육성 및 노지 적용 확대
- 저비용고효율 한국형 스마트 팜 개발 보급
- 현장 지원 강화 및 스마트 팜 기자재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스마트 팜 확산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현장보급 초기단계에 있는 스마트 팜 사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투자와 인프라를 확충하여 스마트 팜의 확산 속도를 가속화하고, 향후 수출산업으로까지 성장토록 하는 데에 방점을 두었다.

< 스마트 팜 의의 및 성과 사례 >

- ◇ (스마트 팜 개념 및 의의) 스마트 팜은 ICT를 비닐하우스·축사·과수원 등에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농장으로 노동력·에너지·양분 등을 기존 관리방식보다 덜 투입하고도 생산성과 품질향상이 가능
 -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은 대외적으로는 시장개방, 내부적으로는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겨울철 긴 농한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 토지·노동의존적인 전통농업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 견인이 곤란하며, 기술집약적인 첨단농업으로의 조속한 전환 시급
 - 따라서, 우리나라가 가진 세계적 수준의 ICT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스마트 팜 확산을 통해 우리 농업의 약점 극복과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론 자본·기술집약적인 미래농업 구현 가능
- ◇ (성과 사례) '14년 스마트 팜 도입 이후 가시적 성과 확산
 - 전주에서 국화를 재배하는 농가는 스마트 팜 도입 후 생육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주어 재배 회전율이 40% 향상되면서 생산량과 소득 모두 40% 정도 증가
 - * 재배 회전율 : (도입전) 2.5회전 → (도입후) 3.5 / 생산량 : 13만본(10a) → 18
 - 전국에서 참외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성주군의 한 농가는 '14년 스마트 팜 도입 후 생산량이 5톤에서 6.5톤(1동, 200평 기준)으로 30%, 매출액도 30%(10 → 13백만원) 수준 증가

- 먼저, 시설원예, 축산, 노지 등 각 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스마트 팜의 현장 확산을 한층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시설원예분야는 시설현대화와 연계하여 '17년까지 현대화된 온실 면적(10,500ha)의 40% 수준인 4,000ha를 스마트 온실로 업그레이드 한다.

- 온실유형과 재배되는 작물 특성에 따라 단동간편형, 연동복합형, 첨단수출형으로 구분하여 모델개발과 확산에 나선다.
- 예를 들어 참외, 수박과 같이 소규모 단동 비닐온실이 재배에 적합한 작물은 측창자동개폐 등 비교적 간편한 원격제어설비만 갖추도록 하여 농가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고,
- 파프리카·토마토와 같이 대규모 자동화 온실 설비를 통해 생산성과 품질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작물은 복합·지능형 제어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방식이다.

* 단동간편형('17 : 1,000ha) : 참외, 수박 주산지 단동형온실(10,719ha)의 10% 수준

* 연동복합형('17 : 2,400ha) : 오이, 딸기 연동형온실(7,853ha)의 30% 수준

* 수출첨단형('17 : 600ha) : 파프리카, 토마토, 화훼 수출면적 100% 전체

- 각 유형별 선도 농가 중심으로 스마트 팜 도입 성과를 창출해 인근 농가로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 축산분야는 '14년 양돈을 시작으로 '15년 양계 등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 축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 '16년부터는 젓소·한우 등 대가축의 생산성 향상에 핵심이 되는 로봇 착유기·자동포유기 등을 일괄지원하는 스마트 축사를 도입하여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 이를 통해 '17년까지 축산분야 전업농의 10% 수준인 700호까지 스마트 축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보급 초기단계인 노지의 스마트팜 사업화는 규모화된 과수원을 중심으로 병충해 예찰과 관수제어 장비를 보급하여 비료, 농약 등 생산요소를 적기·적량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뭄에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17년까지 목표는 규모화 농가의 25%수준인 600여 농가까지 확산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예산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주산지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 팜을 우선 보급한다.

- 수출재배단지에 ICT 융복합 첨단온실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지원 예산을 확대('15 : 246억원 → '16안 : 454)하고, '16년부터는 시설 원예품질개선사업* 예산('16안 : 508)의 60% 수준을 양액기, 자동 개폐기, 시설복합환경제어시설 등 ICT 시설·장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 : 공정육묘장, 제습기, 보광등, 장기성필름, 예냉·저장·선별시설, 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 시설복합환경제어시설, 환풍기 등

- 또한, 스마트 축사를 희망하는 시설노후 농가에 대해서도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우선 지원하여 축사시설을 ICT 적용에 적합하도록 개선한 후, 스마트 축사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국내 제품의 상용화 수준이 낮아 고가의 외국산 제품 점유율이 높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비용·고효율 한국형 스마트 팜 모델 개발과 보급에 나선다.

○ 스마트 온실의 경우 '14.8월부터 농촌진흥청, 출연연, 민간기업 등 관련 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하여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며,

- 참외, 수박재배용 단동간편형 스마트 온실모델은 올해 6월 개발이 완료되어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실증시험 중에 있는데, 딸기·오이 등에 적합한 연동복합형은 하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 토마토 등에 적합한 수출첨단형은 '16년까지 모델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 또한, 하드웨어 국산화와 함께 품목별 최적 생육정보를 분석하여 현장에 제공하는 최적생육관리 소프트웨어 국산화도 진행 중이다.

- 우선 금년 말까지 우수 농가의 환경관리 노하우를 분석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 '16년부터는 토마토를 시작으로 '17년에는 파프리카, 국화, 딸기 등 작물별 최적 생육관리 소프트웨어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외국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출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금년 8월부터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련기관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 (농식품부) ICT정책 총괄, (농진청) 작물별 최적생육환경분석, (강원혁신센터) 생육 정보 취득기술개발, (세종혁신센터) 스마트 팜 환경정보 수집·분석,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빅데이터 수집체계구축 등 역할 분담

○ 스마트 팜 구성기기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병행한다.

- 그동안 현장에서 센서, 제어기 등 스마트팜 부품이 업체별로 규격이 다르고 호환성이 미흡하여 운용과 유지보수가 어렵고 단가가 높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금년 7월 농촌진흥청, 관련기업들이 참여하여 센서 13종, 온실 제어기 9종에 대한 표준규격(안)을 마련하였으며,

- 금년말까지 동 표준규격(안)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단체 표준으로 등록하여 관련기업들의 자율적 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 '17년부터는 스마트팜 구성기기에 대한 표준·규격 적합성을 검증하는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스마트 팜 구성기기의 품질과 신뢰성을 보다 높일 계획이다.

□ 또한, 스마트 팜 전문인력 육성, 농가 실습교육과 사후관리(A/S) 강화 등 스마트 팜 운영농가의 성과제고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도 강화한다.

○ '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농업 생산성을 가진 ICT 전문 농업인 8,000명, 농진청·도농업기술원·시군기술센터 등 현장밀착형 스마트 팜 지도인력 200명, 전문 컨설턴트 120명을 적극 육성한다.

-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도 농업기술원에 마련한 권역별 현장지원 센터 8개소를 통해 수준별*로 체험형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 (초급) 실습형 교육농장(11개소), (중급) 첨단실습장(3개소), (고급) 토마토대학 운영(7월~11월), 해외전문가 초청교육 등

- 작년부터 운영 중인 기술 지원 중심의 SNS 컨설팅*을 생산, 유통, 수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참여농가들이 선도농가·전문가 등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 농업인이 SNS를 통해 현장으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품목별 기술분야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답변('14 : 6품목 → '15.7월 : 20품목)

- 또한, 농진청·도농업기술원의 작목별 전문 지도인력을 대상으로 ICT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네덜란드·이스라엘 등 시설원에 선진국과도 전문가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농업 ICT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전국적인 A/S망을 갖추기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간 역할을 나누어 해결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 단순 고장사항은 ICT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현장지원 센터*에서 담당토록 하고,

* 도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시군기술센터, ICT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교육, 홍보 및 스마트팜 시설·장비 AS 지원(8개소 : 경기, 강원,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구조적·본질적 문제는 시설원예융복합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생산 기업이 직접 A/S를 지원해 주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우성하이텍, 그린씨에스, 동우 등 국내 주요 복합환경제어기 생산업체 참여

□ 스마트 팜 기자재와 농업용 ICT 기기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R&D부터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 ICT기업을 대상으로 기획단계부터 현장애로 해소 중심의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R&D지원*을 확대 ('15 : 86억원 → '16 : 149)하여 관련기업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 ICT 융복합 기술개발(첨단생산기술개발의 내역사업)

○ 한국형 스마트 팜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전문기관(aT 등), IT 기업(KT, SKT 등) 및 스마트 팜 환경제어기 생산기업 등으로 “스마트팜 수출협의회”를 구성, 해외시장 정보조사와 수출 유망 국가를 발굴하는 등 수출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관은 “이번 대책을 통하여 스마트 팜의 신속한 현장 확산과 시장 확대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ICT 연관 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앞으로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과 해외시장 진출 등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통계청 9.15일 기준 예상생산량 발표 관련 20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 조기 마련키로

- 농촌관광 앱(APP)창작 경진대회 결선 진출작 시범 서비스 개시 -

□ 통계청이 발표한 '15년산 쌀 예상생산량(9.15일 기준)은 426만 톤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할 전망이다

*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 : ('14) 520kg/10a → ('15) 533

*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0% 감소 : ('14) 816천ha → ('15) 799

□ 농식품부는 금년 예상생산량 발표에 따라 「'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임

○ 현재 민간(RPC 등)의 벼 매입능력 확충, 밥쌀용 수입쌀 관리 강화, 정부재고 처리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 필요시 시장격리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관계부처간 협의 중에 있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8. 해외 농업정보

◆ 좋은 날씨에 서유럽 지역 곡물 파종 박차

- 파종하기 좋은 날씨의 영향으로 독일 전 지역과 서유럽 지역에 겨울 곡물 파종이 무리 없이 진행 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번 주 유럽 중앙지역 한파로 초기 파종된 작물들의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밤새 내린 서리 예보가 곡물들에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어린 작물이 피해를 받는 온도는 영하 5도 아래이지만 예상만큼 춥지 않았고, 일찍 파종된 지역의 토질이 다소 건조했으나 최근 비가 내리는 등 파종 시작 후 기후가 꽤 좋고 Arvlis 연구원의 Jean-Cahrles Deswarte는 밝혔다.
- 프랑스의 겨울 파종은 80년 만에 가장 많은 지역에 연질밀이 파종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기대 되어 진다고 전했다. 2016년 수확을 위한 연질밀 지역의 23%는 지난주 초에 파종되어 졌으며, 작년 동기간 기준 20%에 비하면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FranceAgriMer사는 밝혔다.
- 독일 또한 최근 내린 비로 파종하기 좋은 토질의 상태를 보여 이 기간 곡물과 유채 등의 파종을 완료한 것으로 독일의 한 애널리스트는 전했다. 종자 판매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매되기는 하였으나 밀 파종 지역이 약간 상승한 반면 유채와 겨울 보리 지역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 영국에서의 밀 파종은 약 60~70% 완료되었으나 쥐꼬리뚝새풀의 문제가 심각해 봄 작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ADAS 곡물 컨설턴트사의 애널리스트 Susan Twining은 전했다. 쥐꼬리뚝새풀은 영국 전역에 피어나는 통제가 어려운 잡초 중 하나이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호주 장기간 가뭄으로 밀, 우유 생산 우려

- 향후 3개월 동안 호주의 뜨겁고 건조한 기후는 호주 농산물 생산 및 밀과 우유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난 수요일 애널리스트들을 전했다. 호주 동부 해안 전 지역에 올해 말까지 평균 강우량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며, 평균 기온 보다 높은 온도를 보일 것으로 호주 기상청(Australian Bureau of Meteorology (BOM))은 밝혔다.
- 곡물이 왕성히 자라야할 시기에 부정적인 전망과 호주 남부와 남동부지역의 최근 평년기온을 훨씬 웃도는 뜨거운 온도 탓에 일부 농가들은 밀 수확량 억제에 나서고 있다. 국립호주은행 농업경제학자 Phin Ziebell은 일찍이 곡물들은 고온의 영향으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으며 이러한 위협으로 밀 생산에 대한 추정이 까다롭다고 전했다. 고대하던 비 소식마저 평균 이하의 강우량 혹은 오지 않을 것이란 BOM 전망에 곡물 농가뿐만 아니라 목축업자들도 울상을 짓게 만들고 있다. 향후 3달간 더 뜨겁고 건조한 기후는 호주의 밀, 카놀라, 우유 생산에 대한 추정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것이다. 반면

쇠고기 생산은 전망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소고기 농가들은 현재 목장의 풀들이 시들고 있고 댐의 수위가 마름에 따라 소고기를 강제로 도살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세계 네 번째 밀 수출국인 호주의 밀 생산 차질은 밀 선물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흑해지역과 호주의 건조한 기후에 대한 우려로 최근 2개월래 밀 선물 가격이 최고가격을 경신했다.
- 호주의 한 원자재 전문예측가는 지난달 25백만 톤의 밀이 초과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 그러나 대다수 국가들은 최근 계절에 맞지 않은 고온을 기록했고 호주의 밀 최대 수출 지역인 남부 또한 10월 초 70년 만에 가장 높은 고온을 기록해 밀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은 것으로 확인된다.
- 낮은 호주산 우유 생산은 호주의 유가공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urray Goulburn사는 유제품 음료 생산을 촉진하고 아시아 치즈 수출을 위해 호주달러 5억 달러(미화 3억6천만 달러)를 투입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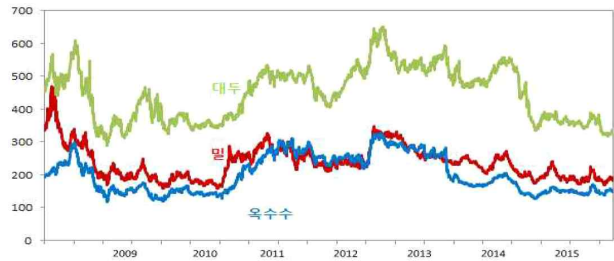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10. 19.(시카고 선물거래소)

전 세계적 대량 공급에 우호날씨 전망에 밀 가격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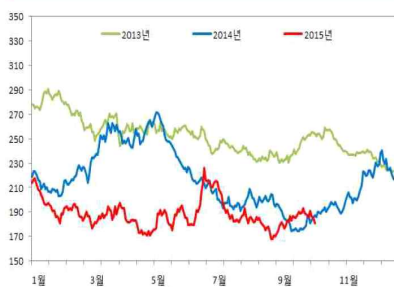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10.16)	전일대비	전월평균 (15.9)	2014 평균
밀	180.85	▼2.0%	179	216
옥수수	148.26	▲0.3%	147	164
대두	330.03	▼0.8%	324	455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12월물, 대두: 11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전 세계적 밀 풍작과 시기 적절한 강우 예보에 부셀당 약 5달러나 하락하며 전일 대비 2% 하락 마감함. Brugler Marketing & Management사의 Alan Brugler는 현재 밀에 대한 문제점으로 환매수를 통해 상승세를 끌어낼 수 있으나 어떤 누구도 매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함. 미국 겨울 밀 재배 지역에 다음주 비 예보로 지연된 파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됨.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한달래 최저치를 기록 후 반등함. 다음주 초 미국 옥수수 지대에 건조한 기후는 수확을 하는데 수월할 것으로 전망되어 상반등세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근 10년간 금지했던 중국의 옥수수 에탄올공장 건설 재개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보임.

대두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두달래 상승세에 따른 차익거래 영향으로 하락 마감함. 최근 개선된 수출 수요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였는데 USDA는 주간 보고에서 최근 150만톤의 수출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으며, 지속적으로 대두 수출 수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Brugler는 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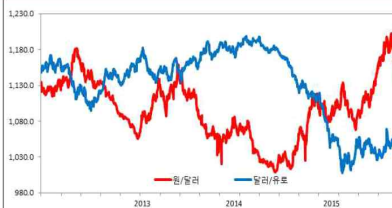
관련동향

- 미국 밀, 대두의 수요 부진으로 곡물 수출가격 약보합 마감
-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시추기 수 감소, 주요국 증시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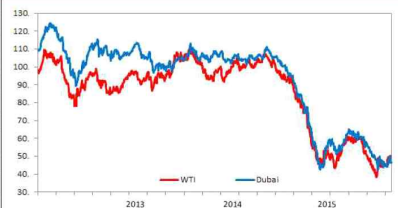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217	▼0.5%	환율	원/달러	1133.7	▼1.4%
	옥수수	175	▼0.6%		달러/유로	1.1374	▼0.9%
	대두	369	▼0.8%	국제유가 (US\$/B)	WTI	50.46	▲8.8%
	쌀	375	▲0.5%		Dubai	46.58	▲0.3%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2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10.15(수출가격), '15.10.16(환율), '15.10.16(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마늘 생산비절감 경영모델 개발사업 연사회(전남)

- 일 시 : 2015. 10. 29.(목) 14:00
- 장 소 : 강진군 작천면 농가 포장
- 인 원 : 40명(단지참여 농가, 관계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마늘 기계화 일관작업 파종연시, 생산비 절감사업 소개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화 사업단지 현황

- 지역 및 규모 : 강진 작천면 1개소, 150ha,
- 참여 농가수 : 130호
- 시범요인 : 마늘(파종·피복·방제) 일관기계화 작업, 마늘 품종 개량

◆ 제9회 농업인 두레품물 경연대회 모집

- 행사명 : 2015 제9회 전국 농업인 두레품물 경연대회
- 기 간 : 2015. 11. 6.(금) ~ 7.(토)
- 장 소 : 여의나루역 한강공원 멀티플라자
- 경연부문
 - 농업인 두레품물 부문, 농촌 어린이국악 부문
- 문의처
 - (사)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2015 전국농업인두레품물경연대회]

Tel:02-979-0248 / E-mail:yhsinbaram@daum.net

◆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5. 10. 20. ~ 11. 30.(42일)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 신청대상 :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
 -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
-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경영체
- 지원 비료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국비지원액 및 규모(계획안) : 1,600억 원, 3,200천 톤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주간
전남농업정보 56호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

